

# 돌무중팀, 최우수상 수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 [리포트]

플라스틱은 유해한 물질이며,  
단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 [영 상]

지구를 지키는 무중이들의 하루



## 돌무중

윤이정, 김나현, 김성엄, 김시예

(안성여자중학교, 명륜여자중학교, 안청중학교 1학년)

## 각오 한마디!

작년에 체커톤을 참여하였고,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 본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지만 조금은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지금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무서운 중딩들!”,  
이번에는 조금 더 무섭게 팩트체크에 도전합니다.

## 팩트체크 리포트

### 플라스틱은 유해한 물질이며, 단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최우리 기자

매우 철학적인 주제네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시의적절하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철 기자

좋은 문제의식이라 보입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일종의 편견에 대해 따져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많은 매체와 뉴스, 각종 기사들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하여 접하는 내용은 ‘플라스틱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 사용을 꼭 줄여야한다.’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처음 발명했을 때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봉지는 종이봉투를 대체할 물건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벌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꾸 나무를 벨수록 자연을 훼손하게 되니 그것에 대한 대체품으로 비닐봉지가 고안된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자 대체품이었던 플라스틱은 현재는 가장 처리하기 곤란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쓰레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의 양으로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플라스틱은 재활용과 재사용하기 가장 좋은 소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취급받고 있지만 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 역시 자원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좋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최근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에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씌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하며, 우리에게 이미 너무 편리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대체품을 찾는 일이 당장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우리 기자

전문가들도 플라스틱을 무조건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물을 포장한 제품같은 경우 그 포장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물질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대부분의 미디어와 보도에서 말하듯이 정말 환경오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캠페인은 곧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 안 쓰기”라고 생각하며, 그 실천을 통해 ‘나는 환경을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과 실천이 정당일까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사용하지 않고 소재를 바꾸며, 대체품으로 인해 생기는 2차적인 오염을 생각한다면 “플라스틱은 안돼!”라는 편견보다 “플라스틱은 나빠”라는 오해보다 플라스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알리고 싶습니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플라스틱을 줄이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서술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플라스틱의 실체를 조명해보겠다는 뜻이라면, 위 문장보다 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접근은 어떨런지요.

플라스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고, 플라스틱이 실제로 환경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꼭 플라스틱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찾아서 우리와 환경 모두를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Q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나요?

### 1. 관련서적을 찾아 사실적인 부분을 파악한다.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플라스틱이 환경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책과 기후변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맞춰 환경을 지키는 실천방법이 수록되어있는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바로 알고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 편견 그리고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와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도 중요하지만 책에 수록되어있는 사실을 먼저 알아봅니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과 관련된 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 2. 환경을 소재로 한 자료들을 조사합니다.

환경오염은 플라스틱이 주범이다, 플라스틱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품을 사용한 사례까지 기사를 통해 우리가 플라스틱에 관한 어떤 편견과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되도록 많은 자료를 알아본다.

그리고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불편한 편견과 오해를 정리한다. 뉴스와 기사는 항상 바른 것만을 전달해야 하지만 때로는 기사의 헤드라인 한 줄이나,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말투로도 우리는 진실을 충분히 왜곡해서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은 나쁜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조금

왜곡되거나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 치우쳐져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뉴스와 각종 사이트와 신문사의 기사들은 무조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진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려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 3. 사람들의 인식 조사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미 이런 조사를 실시했던 (사)한국플라스틱산업진흥협회에 자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오염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지,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없어야 환경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와 어떤 곳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는지 또한 함께 조사해 플라스틱과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산업진흥협회라는 곳은 플라스틱산업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를 확인하기에는 적당한 기관으로 보입니다.

정재철 기자

(사)한국플라스틱산업진흥협회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 환경단체나 환경부 등에서 조사한 내용들과 서로 비교검토해 보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 4. 전문가를 찾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인기는 무엇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업의 대표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환경을 지키는 이미지, 환경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노력 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티셔츠를 입고,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신발을 신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버려진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곳을 인터뷰해 봅니다. 플라스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재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진실을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환경교육을 해주시는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환경강사를 찾아가 인터뷰하며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책에서와 다르게 직접 실천해 보고 경험했던 부분들도 듣고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환경을 관리하는 곳을 방문하여 알아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찾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재활용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폐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알아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받습니다.

## 5. 실천합니다.

자료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나설 때입니다. 학교주변과 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모아 수거하는 곳으로 방문해 봅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도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다른 쓰레기들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기사와 서적, 전문가들의 진실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할 문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에 대해 하나씩 팩트체크를 합니다.

- ① 플라스틱은 우리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 ② 환경오염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③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양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인가?
- ④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양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인가?
- ⑤ 분리수거를 제일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⑥ 플라스틱의 대체품을 쓸 경우 어떤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가?
- ⑦ 생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 6. 우리가 찾은 진실들로 이제는 편견과 오해 대신 진실과 그 실천방법을 알립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팩트를 하나씩 파헤치고 알리는 영상입니다. 우리

“돌무중”이 무서운 중딩의 파워를 보여주는 영상을 촬영해 챌린지를 합니다. 챌린지의 방법은 SNS를 이용하며 공공기관, 학교, 환경단체, 기업들과 함께 챌린지 영상을 배포하며 매년 실시하는 학교의 환경교육과 여러 기관의 환경교육에 우리의 자료가 쓰일 수 있게 합니다.

## Q 팩트체크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람은?

**1. 환경관련 서적** :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팩트가 실린 환경부와 환경재단처럼 개인의 의견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비교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2. 환경전문가** : 환경강사와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담당자 등 환경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과 올바른 인식을 알아 보며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진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매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잊기도 헛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다시 활용이 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교육과 함께 환경 시설 견학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합니다.

**3. 재활용기업** : 우리는 환경에 대해 잘 모르고 플라스틱의 성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모르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인터뷰를 요청하여 기업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경단체 또는 환경부를 통해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양과 재활용되어지는 양을 비교하며 다른 쓰레기나 환경오염의 다른 원인들은 재사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 정재철 기자

재활용 기업을 직접 찾아가보는 발상이 신선해 보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업체에서 생각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과 환경단체 등에서 생각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함께 비교하면서 해법을 제시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 체크해보기

- 물어 보기
- 찾아 보기
- 직접 해보기

## Q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1. 안성시 환경강사
2.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안성시 생활폐기물 담당)
3.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LAR(폐플라스틱으로 운동화를 만드는 기업)

##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먼저 환경을 지키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환경을 지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자료가 그 밑바탕이 되어 실천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환경강사 인터뷰

환경강사님과의 만남은 너무도 설렘이었습니다. 처음 인터뷰이기도 하고 기사와 서적들을 통해 접했던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사님께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여쭙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께 여쭙본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 🎙 플라스틱을 대체할만한 물질이 있을까요?

→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만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실제 플라스틱 만큼 단단하고 견고하지 못해서 100%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물품을 만든다고 해도 견고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플라스틱을 조금 넣기 때문에 완벽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를 요즘 많은 기업들이 종이 빨대로 바꾸고 있는데 이 종이 빨대는 코팅이 되어있어서 재활용되어 다시 종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버려진 플라스틱들로 옷을 만든다는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옷들은 다시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 화학물질을 사용해 만드는 합성물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질의 어떠한 성분도 플라스틱의 견고함 등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은 없는 것이지요. 플라스틱의 주성분이 석유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 🎙 플라스틱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오로지 플라스틱만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 실리콘과 같은 물질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오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혼합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재활용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 최우리 기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플라스틱 물질을 분리해서 재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단일재질로 만들어 재활용이 수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거의 모든 생활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점차 다른 친환경적 물질들로 대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 플라스틱은 진짜 유해한 물질인가요?

→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유해합니다. 플라스틱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성분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어 위험합니다. 텀블러, 도자기, 유리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을 많이 사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최우리 기자

어떤 유해성분이 나오는지도 검증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 플라스틱을 줄여야 할까요? 잘 사용하고 잘 버리고 재활용해야 할까요?

→ 플라스틱을 아무래도 잘 버리고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오래가는 등의 장점을 지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한 생산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인터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데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립과 소각하여 처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팀장님께 플라스틱을 없애면 환경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여쭙보며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처리방법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 🎙️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무엇인가요?

→ 2022년 6월까지 통계를 볼 때, 안성시에서는 1일 평균 131톤의 생활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소각용쓰레기로 1일 평균 약 70톤 발생합니다. 그 밖에 음식물쓰레기는 약 27톤, 매립용쓰레기는 약 10톤 발생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도 약 16톤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안성시에서는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안성시에는 다양한 환경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소각용쓰레기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용쓰레기는 '안성시 환경안정화시설(매립장)'에서 땅에 묻어서(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평택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평택에코센터'에서 바이오 에너지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경우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업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연간 약 8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안성시의 세외수입이 됩니다.



최우리 기자

재활용 쓰레기의 활용 방법이 소개된 인터뷰라서 좋았습니다.

### 🎙️ 플라스틱을 없애면 환경에 더 많은 도움이 될까요?

→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플라스틱이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서 불에 타게 된다면 다이옥신과 같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매립장에 묻히게 된다면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상태로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불 때 플라스틱을 없애게 되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와서 성상에 맞게 분리되고 재활용업체를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판매액은 안성시의 수입이

됩니다. 이 수입이 늘어난다면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 시민복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겠  
죠. 또 재활용업체의 입장에서 제품 생산의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천연자원  
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볼 때, 단순히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재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우리 기자**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더 많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  
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사용하고, 함부로 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탄생과  
마구 버려졌을 때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플라스틱은  
사용에서부터 버리는 문제까지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  
스틱은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물질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버리  
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LAR(플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드는 업체) 인터뷰**

☰ lar
👤 🗣️

안녕하세요  
저는 체커톤 이라는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중학교1학  
년 학생입니다 이번이 체커톤 대회의 주제는 환경이었고 중학교1학년 학  
생 4명으로 구성된 저희 팀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에 더 도  
움이 되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일  
까? 사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로운점이 많은데 그러면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얼마전 플  
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고 또 대기업의 임원이 신어 화  
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 자료를 조사하고 예선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몇가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1. 플라스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플라스틱을 대체할만한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환경오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플라스틱인데 정말 플라스틱만  
줄이면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4. 플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나  
요?
5. 신발을 만드는 과정과 버려질때도 환경을 생각해서 만드셨나요?
6. 신발이 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제품이 또 가능할까요?
7. 플라스틱 말고 또 어떤 버려지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최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글 답변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지 정답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

1. 플라스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라스틱은 만들어지는 데 50, 사용하는 데 50, 버리는 데 50년으로 어떤 예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플라스틱이 너무 편하고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발명품  
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책도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버섯을 제거한다면 내용물을 버리고  
분리수가 한다면 차는 시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플라스틱을 대체할만한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종이 폐기물이나 생분해 폐기물 목수수원 폐기물을 다양하게 나오는데 갈도  
나 유지력이나 가성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  
문에 ESG 를 외치는 기업들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구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환경오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플라스틱인데 정말 플라스틱만 줄이면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는 지구 온난화기스를 배출하는건 플라스틱 말고도 소고기, 육류, 공장 가동등  
여러가지 원인 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극히 일부인데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가장 거대하고 바다에 플라스틱이 30% 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 시대에 실질적인 공찰만 것 같습니다.
4. 플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나요?  
그냥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가 나와서 사봐보고 그 소재로 신발에 붙여볼까 하  
습니다. 아직 자체 연구나 소재 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있는걸  
써야 하는 상황이라 첫 시도는 아쉽습니다.
5. 신발을 만드는 과정과 버려질때도 환경을 생각해서 만드셨나요?  
네 저희는 본드나 폐기물 까지 모두 환경을 생각해서 기획하고 제조하고 있으며  
비밀레드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생각은 해보는데 내년 정도에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신발이 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제품이 또 가능할까요?  
가방이나 의류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7. 플라스틱 말고 또 어떤 버려지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폐어망용 재활용한 나일론을 이번년도 10월부터 사용할 예정이  
고 친환경 소재는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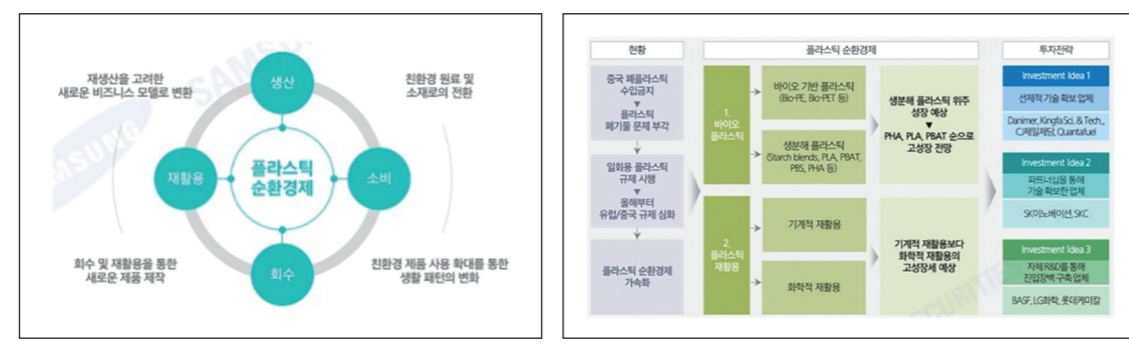
우리는 환경전문가들과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대체품이지만 많은 플라스틱의 사용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플라스틱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어디든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 없으며 우리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플라스틱은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입  
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이 무작정 나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플라스틱은 잘 사용하고, 잘 버리고, 재활용해야  
하는 물질이다.”라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최우리 기자**

개인적으로 플라스틱을 안 쓰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단일재질로 만들고 이를  
또 잘 수거, 분류,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 Q 인터넷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요?

1. 플라스틱의 나쁜 점만을 보도한 기사  
 뉴시스 「세계는 ‘플라스틱과의 전쟁’ 중… 신음하는 생태계」 김혜경기자, 2018. 08. 12
2. 플라스틱 뚜껑, 잘 분리하면 새로운 자원이 된다.  
 인천in 「플라스틱 뚜껑, 잘 분리하면 새로운 자원이 된다.」 정혜진 기자, 2022. 6. 30
3. 플라스틱을 없애기보다 순환에 초점을 둔 리포트



[출처 : 삼성증권 리포트]

플라스틱은 15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류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지나친 편의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과 탄소 배출량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없애기보다 순환경제가 필요하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제조하고, 소비한 후 폐기될 경우 다시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자원이 유실되는 선형적인 구조를 벗어나 폐쇄 및 순환형 구조를 구성하여 자원이 경제시스템 내 오래 머물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역시 기업들이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ESG경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권장하는 것이 맞지는 의심이 듭니다.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석유이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잘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공동체와 사회, 기업의 노력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이시디 보고서를 보면, 지금처럼 사용할 경우 2060년에는 플라스틱의 양이 지금의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팩트체크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5790.html>

## Q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가 있었나요?



플라스틱의 발명은 위대했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또 다른 환경오염을 대체하기 위해 발명한 플라스틱이 다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이야기,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언젠가는 지구에 플라스틱으로만 꽉 찰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책들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플라스틱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버리느냐, 그리고 플라스틱의 대체품으로 만들고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오지는 않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Q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플로깅을 하고 모아진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기
2. 플라스틱을 모아 안성자원순환가게에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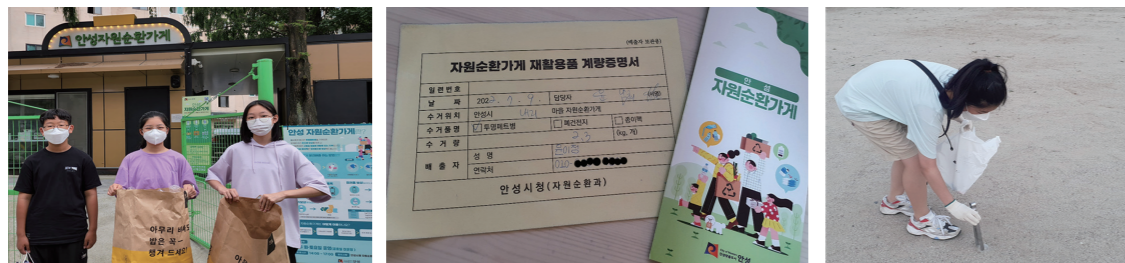
##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실험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줍고 우리가 주운 쓰레기 중에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구별하여 찾았습니다. 우리주변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많았고, 플라스틱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다 버린 음식물들, 담배를 피우고 버린 담배꽂초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 술병과 음료수병이 깨져있는 조각들, 음료수를 먹고 아무 곳이나 버린 캔들, 치킨의 닭뼈와 나무젓가락 등 플라스틱만 있을 줄 알았던 우리의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캔과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모아서 쉽게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은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모아 버려야 했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봉투에 그대로 넣어졌습니다. 손쉽게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버려질수록 우리의 환경은 나빠지지만 잘 사용하고 잘 버린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 최우리 기자

이런 문제의식을 좀 더 확장해서, 왜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수 없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 결론 작성하기

처음에 우리는 “플라스틱은 나쁘다,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없애면 우리의 환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주제를 선택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은 과연 플라스틱 때문만일까? 우리가 배웠던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같은 것들이 모두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질까? 답은 우리도 뻔히 알고 있다. 가축의 배설물로도, 우리가 나무를 베어내는 것에서도, 자동차들의 매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서도, 우리가 먹다가 남기는 음식물에서도, 우리는 환경오염의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유독 플라스틱 쓰레기에 집착하는 것일까? 플라스틱은 거듭 발전해 나아가는 기술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발명품으로 탄생했던 것인데 왜 그런 발명품이 쓰레기로 환경의 가장 큰 적으로 되어버린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인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인식인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을 따지고 비교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 맞습니다!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너무 많이 함부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환경에 좋을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호모플라스티쿠스” 플라스틱과 떼어 수 없는 우리의 생활 때문인 것입니다.



###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온당해 보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고 인정해버린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플라스틱을 없애고 줄이는 일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적재 적소에 맞게 우리는 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버려야 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바르게 다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 신발, 가방, 커튼 등 거의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게 버린다면 이것이 곧 자원순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알려 환경을 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는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 더 들어가기도 하며, 어느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이 더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것들이 아직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행동한다면 잘못된 정보로부터 나를 지킬 수도, 자연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하고,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많이 사용하면 해롭지만 적당히 적절히 사용한다면 인류의 발명품의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알맞게 사용하고, 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재활용된다면 플라스틱은 그것이 처음 탄생했을 때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 미디어 콘텐츠

### 지구를 지키는 무중이들의 하루



▲ 영상보러가기



#### ● 콘텐츠 소개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플라스틱에 관한 뉴스와 정보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보려 애를 쓰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 듣고, TV를 통해 보고, 주변을 산책하면서도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쉬워 누구나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편리함을 가져다 준 최고의 발명품이 어쩌다가 환경오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아마 플라스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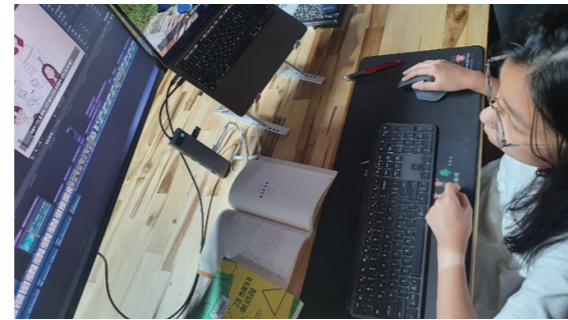
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알아보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보고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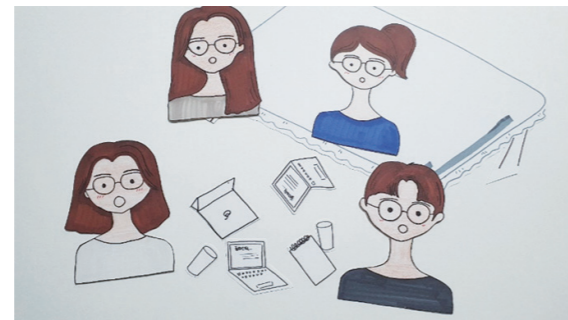
Title : Team :

	플라스틱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환경을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없다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업들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조금씩 속삭여...

< 콘티 작성 >



< 편집하기 >



< 스톱모션에 들어갈 캐릭터 그리기 >





## 참여소감

### 김나현 >>>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되 사용량을 줄이고 업사이클링하여 사용하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애들아~ 모두 고생했어. 우리 만나서 회의하고 같이 견학가고 영상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자! 돌무중 화이팅!

### 김시예 >>>

평소 눈여겨보던 환경문제들을 직접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환경을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 함께 조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세상에는 아직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잡혀 친환경의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약 3달 동안 진행되었던 체커톤이 끝을 맺는다는 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이정 >>>

친구들과 함께 작년에 열심히 준비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마지막을 체커톤을 통해 팩트체크를 배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한 뼘 더 성장한 기분이었는데 중학생이 되어 다시 체커톤에 참가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얼마만큼 더 자라고,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체커톤을 준비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해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대체할 수 없는 물질로 플라스틱을 발명했지만 남용과 오용으로 오히려 플라스틱의 역습을 당하고 있으니깐요. 또한 플라스틱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팩트를 알아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팩트를 체크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팩트체커가 되겠습니다.

### 김성엄 >>>

환경이라는 주제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 생활하는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와 오해와 편견이 설마 많이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을 통해 주변에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너희들이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해줘서 고마워.



## 전문가 피드백



###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 때문에 돌무중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이를 검증해보려는 시도와 관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를 검증하고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사와 전문가들의 강의에 앞서서 돌무중팀이 확인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우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 있다면 생활의 편리함 말고 또 어떤 점이 있었는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본문 첨삭에서 여러번 지적한대로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입니다. 석유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환경 친화적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한 서적, 논문 등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탐독해온 홍수열 한국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이 쓴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플라스틱을 쓸 수 밖에 없다면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기 쉽도록 생산자가 이를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왜 제품 포장을 이렇게 했는지 기업에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환경단체(녹색연합 등)에 재활용이나 재사용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 정재철 기자

팀원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팩트체크를 한 단계씩 진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인터뷰 질문도 고민을 많이 해서인지 매우 준비가 잘 된 듯하고, 답변 속에서 어느 정도 해답도 찾을 수 있는 듯 합니다.

거짓에 체크메이트!

